

2020년 7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김상진(1311), 사무관 정혜영(1324) / 제공일 : 7월 28일(총 5매)
농촌산업과 과 장 김보람(044-201-1581), 사무관 이동민(1592)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 장 신우식(2271), 사무관 김남주(2285)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이재식(2151), 사무관 류성훈(2157)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 총 748억 원 규모의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

《 주 요 내 용 》

- ◆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캠페인 추진(748억 원, 7월 말~)
 - (농촌여행) 농촌관광지 숙박·체험·농특산물 구매 시 카드 결제 금액의 30% 청구 할인(총 18억 원 / 최대 3만 원)
 - 제휴카드사에서 7월2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 적용
 - (농축산물) 온·오프라인으로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권 발급(총 400억 원 / 최대 1만 원)
 - 대형마트·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7월 30일부터,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친환경매장·직매장 등은 9월부터 시행
 - (외식)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회당 2만 원 이상)하면 6번째 외식 시 1만 원 할인(총 330억 원/ 최대 1만 원)
 - 8월 14일부터 외식 이용 횟수 산정, 할인 적용 예정
- ◆ 코로나 19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748억 원이다.
- 첫 번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 명에게 농촌여행 비용을 30% 할인(최대 3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할인권 소지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의 금액(최대 3만 원)을 카드대금에서 청구할인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체험만),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신속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카드사(NH, 신한, 현대)와 제휴하여 추진한다.
 - 농촌관광 할인권 발급은 7월 27일 오전 9시(현대카드는 10시)부터 시작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비자는 3개 카드사 누리집, 앱을 통해 할인권을 신청하고 선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이번 농촌여행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두 번째, 농축산물 구매 20% 할인권(최대 1만 원)을 400만 장 발행하여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 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①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②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1만 원당 2천 원 정률)을 발행하며,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 유통업체가 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입 시 적용

** 오프라인 :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 :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 ①전통시장·중소형마트, ②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③친환경매장, ④직매장 등은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후(後)할인권*(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다.

-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쇼핑몰 등은 제로페이가맹 등 사전절차 완료 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회당 2만 원 이상 이용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총 330억 원)할 계획이다.

* 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 동 캠페인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했던 9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에 적용하며,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되므로 세부 사항은 사전에 홍보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단,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지 경제,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컸다. 이런 위기가 조기 극복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힘내라 대한민국 으랏차차 농업농촌

 농림축산식품부